



결핵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

홍보영상 촬영 현장 이야기

명동 거리캠페인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18일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결핵환자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명동은 서울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날 명동을 방문한 내외국인 500여 명이 결핵환자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직접 적어 패널에 붙이고, 하나의 거대한 패널벽을 완성하는 이벤트에 참석했다. 이벤트 참가 선물은 2012년 발행된 크리스마스 씬. 학창시절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씬을 구입했던 추억이 있거나, 올해 씬을 만났던 참가자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 눈에 띈 것은, 명동을 찾은 외국인들이 대거 캠페인에 참여한 점이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지만 캠페인의 취지를 잘 설명하자 적극 참여하였고, 한국 방문에서 만난 즐거운 경험으로 여기는 듯했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의 어린 참가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참가자, 외국인, 청소년들까지 합심해 완성한 거대한 패널 위에서 결핵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응원 메시지가 팔랑팔랑 바람에 휘날렸다.



미소꿈터 이야기



미소꿈터는 2011년 문을 연 노숙인 결핵시설이다. 오랜 노숙생활로 갖가지 질병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결핵은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의 검진을 통해 발견된 노숙인 결핵환자들은 일단 서북병원에서 결핵치료를 받고, 전염력이 소실되면 퇴원을 하게 되는데, 또 다시 노숙생활 반복에 따른 결핵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공공 보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미소꿈터에 입소하게 된다.

미소꿈터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와 약 복용이 이루어지고, 건강 및 생활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원하는 시간에 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퇴소시까지 자활을 위한 심신을 갖추는 시간이 된다.

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제작하는 홍보영상에 미소꿈터에서 입소자들의 일과, 프로그램 참여, 식사와 약 복용 등을 담았다. 안전 사각지대에서 노숙생활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동안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행복한 웃음을 되찾아준 곳이 바로 미소꿈터였다.

홍보영상의 메인 MC인 김경란 아나운서를 논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전문 MC답게 발음 하나, 표정 하나에도 텍스트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결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김경란 아나운서의 입을 통해 편안하고 쉽게 전달됐다.

프로다운 자신감과 쾌활한 분위기로 촬영을 이끌며 두 시간여 촬영에 응해준 김경란 아나운서에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1월부터 두 달여 간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거리에서, 시장에서, 협회 사업이 관여하는 현장들, 결핵연구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 오랜 기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이제 곧 영상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다. 영상을 통해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대한결핵협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 눈에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아나운서 김경란

